

# '이야기산업' 육성, 제2의 '태후' 만든다

### 정부, 유망 콘텐츠 R&D 투자 2021년까지 올 2배 이상 확대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태양의 후예와 같은 우수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이야기산업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나리오 공모 우수작으로 선정돼 드라마·영화로 제작되고 한류를 형성하며 관광·제조업 등 타 산업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원활한 유통환경을 만들어 제 2, 제 3의 '태후'가 빛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현실 등 첨단영상기술, 무대 기술, 기능성게임, 시나리오 자동생성 지능형 콘텐츠 등 유망 콘텐츠 R&D 투자를 오는 2021년까지 올해(833억원)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적인 신인작가 등단이 이뤄지고 구매자와 매칭되는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30억원 규모의 제작지원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들의 게임몰 과몰입을



지난 2월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7층 두베홀에서 열린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발표회에서 주연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는 모습.

막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섯다문제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이 금지되는 강제적 섯다문제 대신 부모들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이

제한되는 섯다문제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해 뮤지비디오·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가 자체 등급분류제로 변경된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

회에 사전등급 분류가 의무화돼 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자체등급분류후 결과를 통보하고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최대 10%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에 한정된 콘텐츠 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웹툰 등도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진흥원·KOTRA·영화진흥위원회 등 유관기관간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1:1 기업 컨설팅에 나선다.

중국 충칭 등 신규 거점에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 지원펀드를 조성해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국내 우수콘텐츠를 아프리카 등 ODA 체결국가 등 신흥시장에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해 무상 제공하는 등 한류 확대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민근 기자



### 소프라노 강혜명, 이탈리아 오페라 페스티벌 개막작 '나비부인' 출연

소프라노 강혜명(38)이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타오르미나 오페라 페스티벌의 개막작 '나비부인'에 출연한다. 타오르미나 오페라 페스티벌은 시칠리아 섬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 식 야외극장에서 펼쳐진다. 오페라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손꼽히는 축제다.

'나비부인'은 이탈리아 국립TV RAI를 통해 이탈리아 전역에 방송된다. 세계 위성을 통해 270여 개의 유럽 주요 도시 영화관에서도 개봉될 예정이다.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를린 영화제에도 소개된다.

라스예술기획은 "아시아인이 이 페스티벌 개막작의 주역으로 발탁된 건 강혜명이 최초"라고 소개했다.

상대역은 유럽에서 차세대 테너로 부상 중인 조란 토도로비치다. 그리스 국립오페라단의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인 미론 미카일리디스가 지휘봉을 든다.

한편 강혜명은 추계예술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재학 중 일본 후지와라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로 선발, 2006년 NHK 신년 음악회를 통해 데뷔했다. /김민근 기자

## '미술가의 언어'

###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기획전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전북미술문화의 발전가능성과 현대미술의 실험성 및 비전을 모색하는 기획전시를 마련한다.

전시는 8일부터 9월18일까지 전당 미술관 1·2전시실에서 <전북지역 작가 재조명:미술가의 언어>란 주제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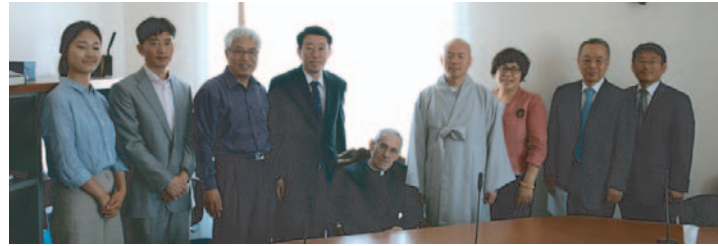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미술관이 전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50명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재)익산문화재단과 (사)한국미술평론가협회의 추천과 인터뷰 및 토론 등의 견수령 과정을 거쳐 전시에 참여할 6인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전시에 초대된 김수자, 김상태, 선기현, 엄혁용, 이강원, 조현 작가는 작품의 다양한 모티프, 형식과 내용, 의미와 주제, 작품의 설치방법에 이르기까지 심 없는 변화를 시도하며 자신만의 창작품을 구축한다. 초대작가들 중 김수자 작가는 캔버스 화면에 회화적 과정을 부가하고, 그 위에 실을 매개로 한 바느질을 통해 옷을 재현하고 중첩시킨다. 바느질은 여성 고유의 감수성과 자의식의 표현으로 작가는 화면 위에 재현해 놓은 옷을 통해 작가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가벼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정해은 기자



이번 전시에서 6인의 작가들은 자신만의 주관과 개성의 표현인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소재 섯다와 기법의 표현 방식에서 유연한 장르의 혼용을 보여준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관계자는 "미술가의 언어를 쉽게 표현 미술이 대중문화화 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으며, 지역작가들의 창작열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시대 미술문화교류의 물꼬를 트고자 했다."고 말했다.



## 세계종교평화협, 문화교류 '성과'

### 바티칸·유네스코 등 관심

(사)세계종교평화협회는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추진한 10일간의 해외교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교류의 성과를 도출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정은 그간 진행했던 세계종교문화축제에 초청되고 유대관계를 맺어 온 바티칸, 유네스코 등에서 관심을 보인 것에 따른 것이다.

먼저 바티칸기록원(바티칸비밀문서고)에서는 교황 요한 22세가 1338년 아비뇽에서 교황대사를 파견하면서 원나라(해원과 기항후)와 교려(충숙왕)를 대상으로 보낸 그리스도교 협조문을 확인했다. 이는 기항후가 원나라(몽고)에서 황후로 등극한 후 교려에 대한 중요성이 비대해짐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종교평화협회는 향후 바티칸기록원으로부터 사본을 전달받기로 약속했다.

또한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사무총장보 마토코와 만남을 가졌다. 그는 세계종교평화협회의 종교간 대화 활동을 높게

평가하며 다른 유관기관의 연대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일정을 고려해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는 해군문서 전문가인 단 박사과 프랑스 기록원을 방문하여 신시도와 관련된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

1847년 신시도에서 좌초된 프랑스 군함 영광호와 승리호의 함장 및 선원들은 수십 일을 체류하며 아사 직전에 있다가 신시도 주민과 전라도 관찰사, 그리고 조선 왕조의 도움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무사히 교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번 자료 발견으로 한·불우호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세계종교평화협회 나유인 집행위원장은 "전라북도 및 대한민국과 관련된 종교문화 기록의 발견은 통해 종교문화의 흥보 차이를 넘어 연구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며 이는 세계종교문화의 허브 구실을 하는 세계종교문화유산원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호신하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총상금 6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 공모는 콘텐츠와 스마트 정보기술(IT), 디자인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평가는 한글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상품성까지 본다. 콘텐츠와 스마트 정보기술 부문은 해당 작품이 판매 가능할 정도로 소비자의 흥미를 끄는지가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디자인 부문은 외국어라도 손쉽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응모 방식을 간소화했다. 우수한 작품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박람회와 전시 참가 기회 등 다양한 상품화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9점 등 13점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전년보다 1600만 원 늘어난 6700만 원이다. 접수는 6일부터 8월8일까지다. 당선작은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누리집 내 공모전 관련 웹페이지(<http://www.kd.or.kr/hangul>)에서 국문과 함께 5개 언어(영어·중어·일어·에스파냐어·러시아어)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

<p><b>▷쥐띠</b> 48년생: 차츰 운이 풀리니 지나친 근심은 금물. 60년생: 뒷사람의 덕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72년생: 큰 움직임은 삼가라. 84년생: 타인과 화합이 잘 되는 운이니 목은 원함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다.</p>	<p><b>▷소띠</b> 49년생: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마음도 몸도 분주한 날이다. 61년생: 생각지도 않게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73년생: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 85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p>	<p><b>▷호랑이띠</b> 50년생: 여유로운 마음으로 때를 기다려라. 62년생: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는 운이다. 74년생: 생각이 많으면 실수로 인해 낭패가 있으니 매사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8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한다.</p>	<p><b>▷토끼띠</b> 51년생: 인덕은 바라지 마라. 63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75년생: 지나친 과단은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라. 87년생: 혼자서는 불가능 하나 셋이서는 가능하다.</p>
<p><b>▷용띠</b> 52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64년생: 정신이 맑지 않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이다. 76년생: 구설수와 시비수로 마음 고생하는 운. 88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관리에 신경써야 하는 운이다.</p>	<p><b>▷뱀띠</b> 53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후반에는 좋은 일이 생기니 급하게 처리하지 마라. 65년생: 여성으로써 재물을 이룬다. 77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잠깐 쉬면서 관광해라. 89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p>	<p><b>▷말띠</b> 54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 틀어진다. 66년생: 좋은 일하고 짝맞는 격.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다. 투자나 투기는 금물. 90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p>	<p><b>▷양띠</b> 55년생: 금전으로 인해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67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 79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신경 쓸 일들이 생기니 미리 예방해라. 91년생: 모진 말들로 인해 마음 상할 수 있는 운.</p>
<p><b>▷원숭이띠</b> 56년생: 외부적인 일들이 생각 외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운. 68년생: 동기간과 함께 움직이면 이득을 볼 수 있겠다. 80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아주 좋은 운이다. 92년생: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p>	<p><b>▷닭띠</b>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69년생: 체계적인 금전관리가 필요한 운이다. 81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무리한 일은 과감히 포기하라.</p>	<p><b>▷개띠</b> 46년생: 사사로움 감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58년생: 원고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따르니 주의하라. 70년생: 문서에 길운이 들었다. 82년생: 다 되었다고 생각한 일이 끝에 가서 틀어질 수 있으니 끝까지 바심은 금물.</p>	<p><b>▷돼지띠</b> 47년생: 마음의 구름이 걷힌다. 59년생: 처음에는 틀어지나 후반에는 화합하니 급하게 서둘지 마라. 71년생: 인덕은 바라지 마라. 83년생: 급성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 운.</p>